

# 배드민턴 공희용-김소영, 8강행

여자복식 조별리그 최종전서  
중국에 저 2승 1패로 조 2위



한국 배드민턴 여자복식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6·전북은행) 조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중국에 졌지만, 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김소영-공희용 조는 27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천칭찬-자이판(중국) 조에 1-2(21-19 16-21 14-21)로 졌다

조 1위 결정전이었던 이날 경기에서 세계랭킹 6위 김소영-공희용 조는 첫 세트를 21-19로 따내며 앞서갔다

그러나 2세트와 3세트를 연속해서 내주면서 어렵게 역전패했다

이로써 조별리그 2승1패를 기록한 김소영-공희용 조는 세계랭킹 3위 중국(3승)에 이어 조 2위로 8강 토너먼트에 올랐다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면서 다른 조 1위를 상대로 준결승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올림픽 배드민턴 복식 경기는 조별리그를 거쳐 8강 진출 팀을 가린다. 각 조 4개 팀 중 1~2위 안에 들어야 한다

김소영-공희용은 이번 올림픽 경기장인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지난 2019년 일본오픈을 우승한 좋은 기억이 있다

한편 남자복식의 서승재(24·삼성생명)-최솔규(26·요넥스) 조는 D조 3차전에서 모하메드 아산-헨드라 세티아완(인도네시아) 조에 1-2(12-21 21-19 18-21)로 저 1승2패로 8강 진출이 어려워졌다



김소영-공희용 조가 27일 일본 도쿄의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복식 조별 예선 D조 3차전 중국의 천칭찬-자이판 조와 경기하고 있다. 김소영-공희용은 중국에 세트 스코어 1-2(21-19 16-21 14-21)로 패했으나 2승1패를 기록,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지난 26일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남자 단체 결승전에 출전,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오진혁. (사진 출처=조선일보)

## 한일장신대 오진혁 동문

### 도쿄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

한일장신대학교 오진혁 동문(2011년 졸업·현대제철)이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6일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남자 단체 결승전에 출전한 오진혁 동문은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경북일고) 선수와 함께 대만을 상대로 6대 0으로 승리, 한국에 3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심각한 어깨 부상으로 은퇴 권유까지 받았던 오진혁 동문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사상 처음으로 남자 개인전 금메달과 남자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9년 만에 다시 선 올림픽 무대에서 오진혁 동문은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틀어 양궁 최고령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정은성 기자

## “한국역도의 저력 보여줄 것”

도쿄올림픽 출전 유동주, 31일 96kg급 도전



진안군청 역도팀 소속 유동주 선수가 오는 31일 도쿄 올림픽 남자 역도 96kg급에 출전해 세계무대에 선다

유동주 선수는 순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순창북중 재학 당시 처음 역도를 접했다. 이후 순창고등학교에서도 역도팀으로 활동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대학 진학 후 15년도, 유동주 선수는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창단과 더불어 입단하여 타고난 신체 능력과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내외의 진안군을 홍보하고 건국선수로서 우뚝 섰다. 유동주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2018,

2019년 2년 연속 3관왕을 차지했으며, 한국 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서는 3년 연속 3관왕을 기록했다

이번 올림픽은 89kg급이 정식 종목에서 제외돼 평소 89kg에 출전하는 유동주 선수가 체중을 올려 96kg급 메달 사냥에 나선다. 유동주 선수는 2020 전국실업 역도선수권대회에서 96kg급에 출전해 메달 3개를 따낸 전적이 있어 감독과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자신감을 보였다

유동주 선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외출 훈련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없는 경기를 하여 한국 역도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자랑 유동주 선수에 무한한 성원을 보내며 이번 대회기간 동안 몸관리에 신경 써 최상의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태권도 진흥재단, 코로나19 방역 강화

T1 공연장 소독 등 진행... '태권도원 100배 즐기기' 잠정 중단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은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태권도원 방역을 강화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종합 안내소에서부터 태권도원 상설공연이 펼쳐지는 T1 공연장, 국립태권도박물관 등 QR 체크인과 발열 측정기 등 진행되는 장소에서의 점검을 지속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문 업체에 의한 태권도원 전 구역 방역과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T1 공연장, 도약센터, 종합안내소, 식당동, 도약센터 등에 대한 자체 일상 방역을 통해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안심할 전자출입관리 시스템’ 운영과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객과 순환버스 및 모노레일 탑승 인원을 정원 대비 50% 이하 입장토록 조치도 하고 있는 등 시행 중인 방역 활동은 지속 시행하며 현장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태권도 체험과 태권 미당극, 태권 야행 등 야외에서 인기에 진행 중이던 ‘태권도원 100배 즐기기 프로그램’ 운영도 잠정 중단한다

또한 태권도원 입장 시 발열 기준을 37도로 적용해 측정에서 기준 체온 초과 시 격리조치 후 재측정과 무주보건의료원 신고, 귀가 조치 등을 시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비수도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태권도원



방역을 강화한다”라며 “태권도원 방문객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집합 금지 인원 적용 등 철저한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